

신년주일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NEW YEAR'S SUNDAY

주후 2023년 1월 1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552 장 “아침 해가 돋을 때” (통일 358)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94 번 새해 (2)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윤영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Matthew) 25:1-13	금종각 집사
찬 양 Anthem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양대
설 교 Sermon	“그런즉 깨어 있으라” (Therefore Keep Watch)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주의 만찬 Communion	(집례: 김일선 목사)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325 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통일 359)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과 기회를 허락해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고,

믿음과 삶이 하나되지 못하는

위선적이고 거짓된 삶을 여과없이 드러낼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서.”

이제부터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한 해를 새롭게 하는 것은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그 안에 채워져야 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3 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거룩한 시간으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엡 4:22, 롬 12:2)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개역개정 마25:13)

“Therefore keep watch, because you do not know the day or the hour.”

(NIV Matthew 25:13)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1 (주일)	1/2 (월)	1/3 (화)	1/4 (수)	1/5 (목)	1/6 (금)	1/7 (토)
	창1	창2	창3	창4	창5	창6	창7
본문	마1	마2	마3	마4	마5	마6	마7
	스1	스2	스3	스4	스5	스6	스7
	행1	행2	행3	행4	행5	행6	행7

신년/특별/새벽/기도/회

*주제: “하나님만 의지하라” (1/3화 - 1/7토, 오전 6:30)

지난 주일(12/25) 말씀 - 성탄 주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이사야 62:6-12)

한국의 한 사설 기관에서, “받으면, 행복해지는 문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그 중) “택배가 도착했다” 또는 “주문한 물건이 배송되었다”는 문자가 전체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과는 비교도 안되는 정말 행복해지는 소식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데, (바로)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로 찾아 오셨고, 또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안에 머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 앞에서, 1)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고(참고사62:6), (또한) 2)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며(참고사62:7), (마지막으로) 3)기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참고, 사62:10)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Buy Now, Pay Later (일단 지금 구입하고, 나중에 지불하라)”는 것이 아니라, “Pay Now, Buy Forever (지금 이미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다 지불되어,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메시지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 가운데, 흑암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놀라운 복음에 고요히 감싸여,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또한)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메/모